

‘5·18 영화제’ 대상 방성수 감독 ‘오월’ 선정

“무거운 역사, 쉽고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 싶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5회 5·18 영화제’에서 방성수 감독(왼쪽)의 단편영화 ‘오월’이 대상을 차지했다.

80년 5월 참상 마주하는 이야기... 섬세한 서사와 독창적 표현 주목

광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5회 5·18 영화제’에서 방성수 감독의 단편영화 ‘오월’이 대상을 차지했다.

‘오월’은 사진작가 민서가 어린 딸 은지와 함께 광주를 찾아 오래된 수첩과 필름카메라를 통해 1980년 5월의 참상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특히 영화는 세대 간 기억을 연결하는 섬세한 서사와 독창적인 표현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할머니에서 어머니, 손녀로 이어지는 여성 3대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날의 당신은 누구였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또 단편영화에서는 이례적으로 3D 애니메이션과 시각효과(VFX)를 적극 활용했다. 영화의 일부 장면은 실제 배우들의 촬영이 아닌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돼, 과거와 현재가 문명적으로 교차하는 화면을 만들어냈다.

방성수 감독은 애니메이션 파트에 대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 애니메이션 장면을 오마주했다”고 밝혔다.

‘제5회 5·18 영화제’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장성암 집행위원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박광은 조직위원장의 인사와 본선진출작 및 심사위원 소개, 심사평에 이어 수상작 15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응모작 150여편 중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8편, 심사위원특별상 1편 등 총 15편의 작품에 상이 수여됐다. 본선 심사위원으로는 김대현 감독, 고은기 감독이 참여했다.

‘오월’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록물 영상 제작의 하나로 완성됐다. 영화제 행사 당일인 2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씨네리브를 통해 특별 상영됐다.

방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5·18의 무거운 역사를 학생들에게 조금 더 쉽고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 싶었다”면서 “과거의 희생이 오늘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다. 기억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한 성찰을 요청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PEOPLE

2025년 5월 1일 목요일



무진의료재단

고향사랑기부 1000만원 쾌척

화순군은 최근 무진의료재단 김재택 이사장과 배우자 이정이 부이사장이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며 3년 연속 고액기부를 이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기탁식에서 3년 연속 고액기부자 등재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나눔 실천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김재택 이사장과 이정이 부이사장은 2023년부터 매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왔으며, 누적 기부액만 무려 3000만 원에 이르러 온기나눔을 실천하는 화순 기부천사로 알려졌다.

김재택 이사장은 “화순 출신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화순의 발전을 응원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이정아 부이사장도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음을 전하게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고향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북구 군수는 “화순의 발전과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 3년 연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보내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강진군은 최근 대구면사무소에서 6·25참전 유공자 고 윤학현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강진군, 전쟁영웅 고 윤학현 일병에 ‘무공훈장’

6·25참전 유공자 전라 속 미전달...추적·탐문 통해 확인

강진군은 최근 대구면사무소에서 6·25참전 유공자 고 윤학현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전수식에는 유족 윤영창씨를 비롯해 대구면 이장단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고 인의의 공로를 기리고 명예를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고 윤학현 일병은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6·25 전쟁 당시의 전란의 혼란 속에서 훈장이 전달되지 못하고 70년 넘게 미전달 상태로 남아 있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특별법과 육군본부 산하 조사단의 추적과 탐문을 통해 유족을 확인하고, 마침내 이번 전수로 이어지게 됐다.

유족 윤영창씨는 “잊혀진 줄만 알았던 아버님의 이름이 다시 불리지고 그 공로가 이렇게 정식으로 인정받게 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럽다”며 “훈장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가족과 지역, 나라 전체의 자긍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고 밝혔다.

전재영 강진군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전수식은 단순히 훈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넘어 전쟁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영웅의 헌신을 다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그 의미를 전하는 귀중한 순간이다”며 “앞으로도 보훈 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따뜻한 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나주시는 최근 영산인 장학회 회원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2500만원을 기탁했다.

영산인 장학회, 나주시에 2500만원 고향사랑기부

25년간 따뜻한 나눔...지역사회 발전 기대

나주시는 최근 영산인 장학회 회원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2500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산인 장학회는 2001년 나주 영산고등학교 운영위원으로 구성, 2002년부터 매년 영산고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지급한 누적 장학금은 4000만원으로 일일 찾점 운영 등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영산인 장학회는 이번 기부를 끝으로 2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체하기로 함에 따라 단체의 따뜻한 나눔 정신을 상징적으로 마무리한다.

장학회 회원으로는 박상희, 김란, 김숙, 김점례, 김주영, 박미숙, 선혜숙, 안경숙, 이금옥, 이명순, 황복순씨가 함께 활동해왔다.

박상희 고문은 “시민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활동해왔다”며 “비록 장학회는 해체하지만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숙 회장은 “2001년부터 이어온 영산인 장학회의 역사와 송고한 정신이 나주시 명예의 전당 현액판에 남겨지고 고향사랑에도 장학회가 동참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정을 보내주시는 영산인 장학회 회원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며 “이번 기부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며 회원의 정성과 뜻이 지역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도, 월동 왕우렁이 피해 예방 온힘

모내기 전 용배수로·벽면에 붙은 알 등 집중 수거 활동

전남도는 왕우렁이 피해 예방을 위해 모내기 전 용배수로·벽면에 붙은 알 등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월동한 왕우렁이(성페)는 모내기할 모를 갈아 먹는 피해를 준다. 이 때문에 왕우렁이 활동도 중요하지만 수거와 함께 눈에 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왕우렁이 피해 최소화 위해 지난해 피해가 발생한 우심필지인 진도 지산면 하심동3단지에서 지난 29일 행정·농업인·단체 합동으로 왕우렁이 수거 활동을 펼쳤다.

수거 활동에는 단지 농가, 친환경·우렁이생산자 협회,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용배수로에 있는 왕우렁이 알과 벽면에 붙어있는 알을 집중 수거했다.



월동 왕우렁이 수거 및 인수도 차단망 설치 시연회

지 용배수로 ‘c자’형 차단망 설치 시연까지 선보여 농업인에게 왕우렁이 수거 및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경각심을 심어 줬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겨울철 길이갈이로 는 속의 왕우렁이 개체 수를 줄였다면 이제는 용배수로를 통한 유입을 막아야 할 때”라며 “모내기 전 용배수로 왕우렁이 수거 및 차단망 설치에 꼭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게시판

알림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담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말씀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결문센터. 문의 062-374-2818.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4월 4일)

48년생 눈으로 보면 남쪽 할 수 있다. 60년생 변화하지 않으니 뜻이 이뤄진다. 72년생 의심스런 투자는 경계하라. 84년생 원하는 단계를 이르게 된다. 96년생 가족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라.

51년생 욕심을 부리다만 화를 부른다. 63년생 변동하지 말고 기만치 않아라. 75년생 호주머니를 그리고 있으니 조심. 87년생 부동산 거래는 철저히 살펴봐라. 99년생 남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

54년생 구슬수를 듣게 되니 자중하라. 66년생 아랫사람이 도와주니 이익이 있다. 78년생 교통사고 특히 적색차 조심. 90년생 직장에 기쁨이 가득할 것.

57년생 나의 고통은 내가 초초한다. 69년생 탄력을 받으면서 일취월장하라. 81년생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93년생 전례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49년생 금전에는 이익이 있고 다를 수도 있다. 61년생 미흡하다라도 일단락된다. 73년생 문서 운이 좋으니 계획도 성공. 85년생 금전 융통이 어려워 전전긍긍한다. 97년생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다.

52년생 가족들로 인한 경사가 따를 것. 64년생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76년생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88년생 새로운 수입 생기고 일은 해결된다.

55년생 빛 속속으로 상심하게 된다. 67년생 배우자와 말다툼을 주의하라. 79년생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어라. 91년생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날.

58년생 지켜보만 있으면 될 것이다. 70년생 적극성을 띠면 성과가 기대된다. 82년생 친구들이 멀어지는 운이라. 94년생 이성 관계는 화를 부르게 된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진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날. 62년생 모든 일에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겠다. 74년생 초지일관한 일 이루게 된다. 86년생 도움을 청해도 상대는 회담이 없다. 98년생 뜻하지 않은 횡재수가 있다.

53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될일이 있다. 65년생 모색하다보면 속원을 만난다. 77년생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라. 89년생 금전보다는 우정을 먼저 생각하라.

56년생 유혹당하면 후회되는 일이 있다. 68년생 귀하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리라. 80년생 협력의 연이 일취월장 발전하게 된다. 92년생 동료는 적이 아니니 믿음을 가져라.

59년생 일을 결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71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 83년생 무모한 일은 생각도 하지 말라. 95년생 일이 꼬이고 학혀 괴로운 날.